

# 목포수산물지원센터, 전국 첫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 진흥구역 지정·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추진 국비 지원...김산업 연구·개발 리더 역할 기대

목포시가 우리나라 김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목포시는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산업 전문기관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품질향상 및 세계화 촉진 등 김산업 전반의 육성·지원 등을 통해 김을 최초 10억 달러 수출 식품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수부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0월 해수부의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공고에 따라 출연기관인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12월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목포수산물지원센터를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로써 목포수산물지원센터는 그동안 쌓아온 수산물 연구·개발·지원 역량을 토대로 김 제품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안전성 연구 등 김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의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을 노력한 것은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수산물 품 김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해 세계적인 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

는 구상이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우리나라 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 강진, 전남 인구정책 우수사례 '장려상'

### 전국 최고 규모 육아수당 지급·푸소 통한 생활인구 유입 성과

강진군이 지난 20일, 전남도가 시행하는 '2022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문제 극복 노력, 정책개선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해 최종 8개 시·군을 선정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선제적 행보로 화제가 됐던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 사업'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푸소 시즌2' 2건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0~세 아동 양육가정에게 매달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한 아동당 최대 84개월, 총 5,040만 원을 지

원받을 수 있다.

이는 육아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심각한 저출산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비상하겠다는 강진군만의 통 큰 시책이다.

육아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인구소멸의 위기가 지역사회 발전 동력을 잠식한다는 위기의식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하나의 우수사례로 제출된 '푸소 시즌2'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모두 확보하는 전략 주목을 받았다.

/강진=한홍수 기자

# 영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300여 가구 추가 접수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접수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영암군에 거주하면서 2022년에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설치비용을 실제 부담하는 주민이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환경기후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보일러 제작사 지원금을 추가하여 무상 설치가 가능한 제로도 있다.

영암군은 올해 국비 포함 총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등 총 56세대의 가구에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국비 1800만원 포함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올해 남은 기간 총 300여 이상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저녹스 보일러란 LNG 가스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콘덴싱 난방 장치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효율은 높은 보일러로, 연소 시에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여 준다라는 의미에서 저녹스 보일러로 불린다. /영암=김형두 기자

# 무안 신청사, 현 군청 부지로 결정... 2025년 착공

### 약 800억 들어 서남권 중추도시 건축물 신축... 군민 소통 열린행정 구현

무안군은 무안군 신청사를 현 무안읍 군청 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안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25명 중 19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에서는 현 군청 부지가 만장일치 후보지로 결정됐다.

무안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9개월·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군청사부지 57%, 무안읍 황토공원 13%, 무안읍 조당

대 맞은편 농경지 9%, 옹동 신도시 청사부지 16블럭 14%, 기타7%로 나타났다.

군은 내년 4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 하반기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청사 신축 TF팀 구성, 군 관리계획 및 군 관리계획시설변경, 2024년까지 현상 설계공모 및 군민 공청회, 실시설계 용역,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건립될 청사는 약 80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건축물로 신축된다.

군 관계자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로 완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건립될 청사는 약 80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한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건축물로 신축된다.

군 관계자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로 완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 해남,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명 배정

### 내년 초부터 순차적 입국... 어가 인력난 해소 기대

해남군은 내년 어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국내 근로자 고용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에는 어업분야에 7명이 입국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9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

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2023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수요조사를 거쳐 48개 어가에서 130명 배정을 법무부에 신청해 신청량 전부를 배정받았다. 2023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023년도 농업분야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266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고용할 예정으로 있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 신안, 2024년 국고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 총 79건 1조 7111억 원 규모...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신안군은 지난 1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총 79건에 1조 7111억 원 규모의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신규사업은 34건에 총사업비는 3,478억 원 규모로 2024년 국비요구액은 453억 원이며, 이와 함께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사업 건의액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섬 해양자원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 구축 25억 원 ▲유네스코 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4억 원 ▲신안 갯벌 생태탐방로 조성 20억 원 ▲공영체 여객선 건조 지원 30억 원 ▲1섬 1테마정원 6차산업 육성 50억 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100억 원 ▲신안군 암태~주포 갯벌생태계 복원 14억 원 ▲비금~암태 연도교 건립 370억 원 ▲2지구 다목적농촌융복합 140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405억 원 등이다.

박우량 군수가 직접 의견을 제시한

'돌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수출 김 대형 냉동저장시설 설치' 및 '이동형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추가 사업들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보고회에서 논의된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추가 보완하여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발굴된 사업의 최종 반영 이외에도 정부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응모 등 모든 역량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태연 기자

# 진도,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 안정적 행정 서비스·조직 활력 기대

진도군이 신규 공무원 12명의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임용은 행정, 방송통신, 환경, 토목 등 총 4개 직렬 12명이다.

특히 신규 공무원 중 9명은 진도군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신속히 충원된 토목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진도군 토목 사업 분야 인력난 해소와 향후 민선 8기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현안 사업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군은 이번 임용을 통해 부서별 결

원 보충과 함께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어 능동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큰 용기를 발판으로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직 첫발을 내딛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민에게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박태연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